

Red Skelton was an American comedian who was very popular 50 years ago. He had many characters in his comedy sketches including Freddie the Freeloader and Clem Kadiddlehopper. One of his most famous characters was Junior, the Mean Widdle Kid. Junior constantly got into conflict with himself as he pondered whether or not he should play up and be naughty. He would say to himself, "If I dood it, I'll get a whipping!" His inner conflict would last only a brief second, ending in a mischievous chuckle and the words, "I dood it anyway!" That is the struggle many of us, most of us, know all too well. We are confronted with the temptation to sin, we know that there will be consequences if we sin, we ponder the temptation for a brief second, then we "dood it anyway". In Romans 7, Paul summarizes this struggle with these words: "I have the desire to do what is good, but I cannot carry it out... When I want to do good, evil is right there with me" (vv. 18b, 21).

오십년 전쯤 매우 유명했던 레드 스칼튼이라는 미국의 코미디언이 있었습니다. 그는 프레디 더 프리로더와 클렘 캐디들호퍼를 포함한 코미디 극에서 많은 역할을 맡았었는데요, 그의 가장 유명한 역할은 '개구장이 위들씨의 꼬마'에서의 '주니어' 역이었습니다. 주니어는 장난을 치거나 짓궂은 짓을 할지 안할지를 곰곰히 생각할 때마다 스스로와 지속적인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는 "내가 그것을 해버린다면 나는 매를 맞게 될텐데.."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곤 했지만, 그는 장난끼 담긴 킁킁거리고 "나는 어쨌든 해버렸넹!"이라는 말을 끝으로, 그의 내적 갈등은 겨우 짧은 순간만 지속될 뿐이었습니다.

As we come to verse 7 of Romans 7, another question is introduced: "Is the law sin?" Paul is anticipating that his argument in 7: 1-6 – namely that we were "married" to the law, but now have been freed from it by our death in Christ, and are now married to him – this argument will lead his readers to wonder if the law is in itself a bad thing. Again, there is a very short answer – "Certainly not!" – followed by a much longer one. There is nothing wrong with the law of God. Indeed, in the Sermon on the Mount, Jesus said that if anyone speaks dismissively of the law or waters it down, that person is under the curse of God. The law abides forever (Matthew 5: 17-19). But we need to understand what the law is for.

우리가 로마서 7 장 7 절에 이를때, 또하나의 질문을 소개받게 됩니다: "율법이 죄인가?" 바울은 7 장 1-6 절에 나온 이 이슈 - 이름하여 율법과 '혼인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 율법에서 자유케되어, 이제 예수님과 혼인한 것-를 예상하고 있었고, 이 논쟁은 그의 독자로 하여금 그렇다면 율법은 나쁜 것인가라는 의구심을 갖도록 이끕니다. 여기 다시 매우 단호한 대답이 있습니다 - "절대 아니지요" - 훨씬 더 긴 대답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실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만일 어느 누구도 율법을 경시 말하거나 희석시킨다면 그는 하나님의 저주아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마태복음 5:17-19). 그러나 우리는 그 율법이 왜 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The main purpose of the law is to show us the character of sin. That is why Paul says, "Indeed I would not have known what sin was except through the law" (v. 7). How does the law show us the character of sin? Well, first it simply defines sin for us. Paul says, "for I would not have known what coveting really was if the law had not said, "Do not covet" (v. 7). The very concept of coveting, of envy, is outlined by the law. Without that standard, Paul would not have understood that this is sin. Second, the law reveals sin in us. "For apart from law, sin is dead", says Paul (v. 8). When the commandment of God comes to us, it actually aggravates and stirs sin up in our hearts, showing us not just what sin is in general, but how sin dwells within us. Paul states this idea again in v. 13: "In order that sin might be recognized as sin...through the commandment sin might become utterly sinful". Paul found that the more he tried to avoid coveting and envy, the more coveting and envy grew! As he read the law, sin in his life got utterly sinful, that is much worse and totally inexcusable. Then he could see his sinfulness and his need.

율법의 주요한 목적은 우리에게 죄의 성격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런즉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7 절) 라고 바울이 말한 까닭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율법이 죄의 성격을 우리에게 알려 줄까요? 글썄요, 우선 그것은 간단히 우리에게 죄를 정의내리게

합니다. 바울은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 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7 절). 욕심을 부리고 부러워하는 바로 그 개념은 율법에 의해 윤곽이 그려집니다. 그 기준이 없다면 바울은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둘째로 그 율법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게 합니다.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리라”라고 8 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것은 죄가 일반적으로 무엇인지를 단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죄가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며 우리 마음에 있는 죄를 실제로 가중시키고 충동합니다. 바울은 이런 생각을 다시 13 절에서: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함이니라”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탐내고 부러워하는 것을 더 피하려 할수록, 그 탐내고 부러운 마음은 더더욱 커져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율법을 읽을 때, 그의 인생에서의 죄는 철저히 죄성을 갖은, 더욱 나쁜 것이 되고, 완전히 변명할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죄악의 가득함과 그의 필요를 볼 수 있게 된 것이지요.

You see, the law cannot save us – but it can and must show us that we need to be saved, that we are sinners. Unless the law does its work, we won't look to Christ. We will be in denial about the depth and nature of our sin. In other words, we need the law to “convict” us of sin before we can see our need for the grace of God in Christ. In fact, Paul is saying something more than that the law shows us our sin. The law, he says, actually aggravates or provokes sin in us: “But sin, seizing the opportunity afforded by the commandment, produced in me every kind of covetous desire” (v. 8). How does this happen? The basic answer is that there is a “perversity” about our hearts. “Perversity” is a desire to do something for no other reason than because it is forbidden. Until the command against an evil thing comes to us, we may feel little urge to do it. But when we hear the command, our native “perversity” is stirred up and may take over. 여러분이 알다시피,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그렇지만 그것은 우리가 구원될 필요가 있다는 것과,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고, 율법은 그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율법이 그러한 것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의 속성과 그 깊이에 관하여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를 깨닫기 전에, 우리에게 ‘유죄를 선고할’ 그 율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율법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보여준다는 것보다 더 많은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율법은 실제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더 악화시키고 더 부추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8 절). 어떻게 이러한 것이 일어날까요? 그 기본적인 대답은 우리 마음에 “오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기”란 뭔가가 금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뭔가를 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악한 것에 대항한 계명이 우리에게 오기전에는 우리는 그것을 범하려는 충동이 거의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명을 들었을 때 우리의 “오기” 본능은 자극되고 우리를 압도하게 됩니다.

The great Church father, Augustine, describes a time when he stole some pears as a boy: “Near our vineyard there was a pear tree, loaded with fruit, though the fruit was not particularly attractive either in colour or taste. I and some other youths conceived the idea of shaking the pears off this tree... We stole all the fruit that we could carry. And this was not to feed ourselves; we may have tasted a few, but then we threw the rest to the pigs. Our real pleasure was simply in doing something that was not allowed”. Augustine had discovered that there is always a deeper motive for every sin. When a person lies or steals or is impure or cruel, there is always a superficial motive. There is greed or anger or lust and so on. But Augustine's experience of the pear tree (and his study of the Bible!) showed him that the underlying, ultimate motive of sin is to play God.

고대 교회의 위대한 아버지 중 하나인 어거스틴은 어린 시절 그가 배 몇 개를 훔쳤던 시간을 이렇게 서술합니다. “우리 포도밭 옆에 그다지 빛깔도 맛도 특별히 먹음직스러워 보이지 않았지만, 많은 과실이 달린 배나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와 몇몇 다른 아이들은 그 나무를 흔들어서 배들을 떨어뜨릴 생각을 품었고.... 우리는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과일 모두를 훔쳤습니다. 이는 우리를 배부르게 하려는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몇 개는 맛을 보았지만 나머지는 돼지들에게 던져버렸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단순히 허락되지 않은 무언가를 한다는 데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은 모든 죄에는 언제나 깊은 동기부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훔치거나 순수하지

못하거나 잔인할때, 언제나 겉으로 드러나는 동기가 있습니다. 욕심, 화, 정욕등을 말하지요. 그러나 어거스틴의 배나무의 경험 (그리고 그의 성경에 대한 공부!) 은 모든 죄의 저변에 깔려있는 궁극적인 동기인,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자 함인것을 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We have a deep desire to be in control, to be in charge of the world and of our lives. Every law God lays down reminds us that we are not God, and prevents us from being in control, living as we wish. In its essence, sin desires to be God. What was the first temptation from Satan, the serpent, in the garden of Eden? "...when you eat of it...you will be like God" (Genesis 3: 4). That was the essence of the first sin, and it is the essence of all of ours, too. Therefore, since the essence of sin is the desire to play God – to have no restrictions on our sovereignty – every law or command will stir sin up in its original force and power.

우리는 우리 인생과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 통제하고자 하는 깊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거하신 모든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우리가 바라는대로 컨트롤하고 사는것으로 부터 우리를 막습니다. 죄 안에 있는 본질은, 하나님이 되고자 갈망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에덴 동산의 뱀, 그 사단으로부터의 첫번째 유혹입니까? "...너가 그것을 먹으면...너는 하나님같이 되어" (창세기 3:4). 그것이 첫번째 죄의 본질이었고 또한 우리 모두의 모든 죄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본질은 하나님 역할을 하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이기에 – 우리의 통치권에 아무런 제한을 가지지 않기 위해-모든 법과 명령은 그 죄의 근본적 힘과 파워안에서 죄를 충동시킬 것입니다.

Paul goes on to say that there was a time, "once", that he was "alive apart from law" (v. 9). "Apart from law" means that in the past he had never seen the law's real and essential demands. He had not realized what the law really required. When he says he was "alive", he is saying that he felt he was spiritually alive – pleasing to God. His perception of being "alive" was due to his ignorance of what the law really asks for. And so, he goes on in v. 9, "when the commandment came...I died". Subsequently something happened to show him that he wasn't pleasing to God at all, but that he was under God's condemnation. What caused this change of consciousness? "The commandment came" – that is, the commandment came home to him and he was convicted of his sin. This doesn't mean Paul had never before seen that he sinned, but rather that he finally realized that he was "dead", condemned – lost because of his complete failure and inability to keep the law of God. He had been a proud Pharisee, sure of his standing before God (Acts 26: 4-5; Philipians 3: 4b-6) – until he read the law, and realized he was a sinner, lost and unable to save himself.

바울은 "전에" 어떤 때가 있었고, "법을 깨달지 못할 그때에는 내가 살았더니"(9 절) 라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법을 깨달지 못하다"란 의미는 그가 과거에는 율법의 진정한 근본적인 요구들을 알지 못했다는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율법이 실제로 요구하는것을 깨달지 못했었습니다. 그가 "살았더니"라고 말한 것은 그가 영적으로 살아있는것-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과 같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살았더니"라는 인식은 그의 율법이 진정으로 요구하는것의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9 절에서 계속하여 "계명에 이르매...나는 죽었도다"라고 합니다. 이어서 그에게, 그가 전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있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뭔가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무엇이 이런 그의 의식의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계명이 이르매.." – 그것이었습니다. 계명이 그의 집을 찾아왔고 그는 유죄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바울이 한번도 죄를 범했다고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마침내 "죽었고"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데 대한 그의 완전한 패배와 무능함으로 인해 구제받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Verse 8 suggests that the commandment that "killed" Paul was the 10th, "You shall not covet". This is not surprising, because Paul had been a Pharisee, and the Pharisees thought of sin only in terms of external actions. They felt that as long as you didn't perform an evil act, you were not guilty of sin. But, as Jesus showed in the Sermon on the Mount, the Ten Commandments refer not only to our behaviour, but also to our inward attitudes and motives (Matthew 5: 21-30). However, when you read the Ten Commandments as they are written (Exodus 20: 1-17), you could easily look at them only in terms of externals and outward behaviour. You can interpret the

law superficially, seeing it only as behavioural rules that are not that hard to keep – “I haven’t worshipped an idol, I haven’t disobeyed my parents, I haven’t murdered, stolen, committed adultery or lied”. But when you come to the 10th commandment, you have a problem, because it cannot be reduced to an external. “You shall not covet” has everything to do with inward attitudes and heart issues. To “covet” is to be discontent with what God has given you.

“Coveting” includes envy, self-pity, grumbling and complaining.

8 절에서 바울을 “죽인” 그 계명이란 10 번째의 “탐심하지 말라”였습니다. 이점은 놀랄만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이었고 그 바리새인들은 죄를 단지 외적인 행동이라는 범주에서 생각했으니까요. 그들은 사악한 행동을 하지않는 한, 유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언급한 십계명은 우리의 행동만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 태도와 동기들 또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21-30). 그러나 여러분이 십계명을 그것이 쓰인대로 (출애굽기 20:1-17) 읽어본다면, 여러분은 쉽게 그것이 외적이고 드러나는 행동에 국한되어 있는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계명을 그다지 지키기 어렵지 않은 행동에 관한 규칙으로 보며, 표면적으로 해석할수도 있습니다 – “나는 우상을 섬긴적이 없고, 내 부모를 거역한 적이 없고, 살인한 적도 없고, 훔친적도 없고, 간음을 하거나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10 번째 계명에 왔을때, 그것이 외적인 것으로 축소될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너희는 탐심하지 말라”는 내적 태도와 마음의 문제에 관련된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탐심”이란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주신 것에 불만을 품는 것입니다. 이는 부러움, 자기 연민, 불평 불만을 포함한 것입니다.

Paul had never understood sin as a matter of inward longings and idolatrous drives and desires. He had never seen sin as essentially “coveting” against God, failing to love God enough to be content. He had thought of sin only in terms of breaking rules. So what happened when he really read, and truly understood, the 10th commandment? His own covetous desires and ambitions were awakened by it. He realized that these commandments, given to show God’s people how to live in this world, “actually brought death” (v. 10). Externally, Paul may have looked very good but internally he could not be anything other than a sinner – deserving of God’s condemnation and death. The flaw or fault was not in the law but rather in Paul, the sinner. The law is holy, righteous and good (v. 12). It exposes the evil force of sin within each of us. 바울은 한번도 내적 갈망이나 우상 추구와 욕망의 문제로 죄를 이해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한번도 죄를, 하나님을 충분히 만족하며 사랑하기를 실패한, 하나님에 거역한 본질적 “탐욕”으로써 바라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죄를 단지 규칙을 어기는 범위에서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가 10 번째 계명을 실제로 읽고 진정으로 이해했을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의 안에 있던 탐욕스런 갈망과 야망은 그 계명에 의해 깨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주어진 이 계명들이 “실제로는 죽음을 가져왔다” (10 절) 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겉으로 바울은 매우 선하게 보였을 수도 있었겠지만, 내적으로는 한 죄인-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을 받아 마땅한 -그외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결함과 잘못은 그 율법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 안에 있는 죄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이었습니다 (12 절). 그것은 그리하여 우리 각자 안에 있는 죄의 사악한 힘을 드러냅니다.

All this leads Paul to pose another question: “Did that which is good, then, become death to me?” (v. 13). In other words, “Is the law a killer?” “By no means!” he answers. It was sin that killed him, working through “what was good”, that is, the law. Sin is the killer and the law, which is good, is its weapon. In vv. 14-25 Paul goes on to talk of his experience of struggling with sin. Is he talking about himself as an unbeliever, or as a believer? This is a difficult question, and plenty of wise, godly people have been on both sides of this issue. I believe that the evidence points to Paul speaking of his own present experience – his Christian life as a mature believer. Paul lays out his inner struggle – a struggle experienced by every person who has received new life by the Spirit of God, every Christian believer – he lays it out in vv. 14-17, then recapitulates it in vv. 18-20 and finally summarizes it in vv. 22-23.

이 모든 것은 바울로 하여금 또다른 질문을 제기하도록 이끕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13 절). 다른 말로 하면, “그 법이 죽이는 자입니까?” “결코 아닙니다!”라고 그가 답합니다. 그를 죽인것은 “선한 것”, 바로 율법을 통해 드러난 죄였습니다. 죄가 죽이는 자요, 율법, 그 선한 것은 죄의 무기입니다. 바울은 계속하여 14-25 절에서 죄와 싸우는 그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

자신을 믿는자로서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안믿는자로 이야기 하고 있나요? 이는 어려운 질문으로써, 수많은 현명하고 하나님께 매인 사람들이 이 두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증거들이 바울 자신의 현재의 경험-성숙한 믿는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하고 있다는 쪽을 뒷바침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바울은 그의 내적 어려움-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새살을 받은 모든 사람들, 모든 기독교의 믿는자들이 하는 고분분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14-17 절에서 나열하고, 18-20 절에서 다시 집어보고, 22-23 절에서 마침내 요약정리 합니다.

On the one hand, we now identify with the law of God. A Christian can now see God's law as "spiritual" (v. 14); can desire to keep it (vv. 15, 18); can "agree that the law is good" (v. 16). None of this was possible before we were converted. Further, Paul says that it is in "my inner being" that he rejoices and delights in the law. This is like saying "deep in my heart" or "in my true self". He is alluding to the awareness we all have of conflicting desires. We have, in some sense, "multiple selves". The great question we all face is - "because I have divergent desires, different "selves", which is my true self? What do I most want?

한편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율법과 더불어 같은 견해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하나님의 법을 "영적"(14 절) 으로 볼수 있고; 그것을 행하기를 갈망하고 (15,18 절);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 (16 절) 할수 있어야 합니다. 이들중 어느 것도 우리가 개종되기 전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율법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속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내 마음 깊은 곳에" 혹은 "참된 내 속에"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에게는 서로 충돌하는 욕망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다중적 자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위대한 질문이란 -"내안에 다양한 욕망을 지닌 서로 다른 "자신들"이 있기에, 어느 것이 참된 나 자신인가? 나는 무엇을 하길 가장 원하는가? 입니다.

For a Christian, that question is settled, even though the conflict isn't. The law of God is our "inmost" delight, "the law of (our) mind" (vv. 22-23). Of course, Paul sees that there is still a powerful force of sin and rebellion within, but those desires are not truly "him". "It is no longer I who do it, but it is sin living in me", he says in v. 20. A Christian has had an identity transformation. As we saw in chapter 6, a Christian - the true "I" - really seeks God and loves his law and holiness. Although sin remains in me with a lot of strength, it no longer controls my personality and life. It can still lead us to disobey God, but now, sinful behaviour goes against our deepest self-understanding.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갈등은 여전할지라도 그 질문은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의" 즐거움이고 "우리 마음의 법" (22-23 절) 입니다. 물론 바울도 그안에 죄와 거역의 강력한 힘이 여전히 존재함을 알지만 그러한 욕망은 참된 "그"가 아니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라고 20 절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신분 변형을 가지게 됩니다. 6 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그리스도인인- 참된 "나"-는 진실로 하나님을 구하고 그의 법과 거룩하심을 사랑합니다. 비록 죄는 여전히 강력한 힘을 행사하며 내 안에 남아있지만 그것은 더이상 우리의 인성과 삶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이끌지만, 그러나 이제 그 죄성의 행동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의 자기 이해에 역행해 갑니다

So, though the Christian loves God's law he or she still has a powerful centre of sin remaining within, which seeks what the Christian hates (v. 15). The unbeliever cannot keep the law but neither can the believer! Many people are puzzled that Paul seems not only to characterize his present condition as one of struggle, but almost of defeat. "I am unspiritual, sold as a slave to sin" (v. 14). But the reason Paul tends to cast things this way is because he is looking at his struggle from a particular perspective. Paul wants to emphasize that in yourself, even as a Christian, you are incapable of keeping the law. He is saying (it's his own personal testimony): "In myself, I am still unable to live as I should". Even though there is a new identification, love and delight in the law of God, a Christian is still completely incapable of keeping the law.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법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의 강력한 중심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싫어하는 것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15 절). 믿지 않는 자도 율법을 지킬수 없고 믿는자들도 지킬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그의 현재 상태를 하나의 어려움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거의 패배에 가까운 모습으로 보인다고 혼란스러워 합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의 노예로

팔렸도다” (14 절). 바울이 이런 식으로 말을 던진 까닭은 그가 그의 어려움을 어떤 특정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심지어 그리스도인조차도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음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그의 고유의 개인적 간증입니다) “내 속에서 나는 여전히 내가 마땅히 해야하는데로 살 수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법 안에서 기쁨과 사랑이 있음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그 법을 지킬 능력이 완전히 없는 것입니다.

Paul’s words here provide both a 2-fold warning and a wonderful comfort to us. First, they warn us that no one ever gets so advanced in the Christian life that they no longer see their sin. If we ever feel ourselves to be pretty good Christians, to almost have made it, we are deceived. For the more mature and spiritually discerning we get, the more we see of the sin in our hearts. The more holy we become, the less holy we will feel. Even when we know and see ourselves making progress against many bad habits and attitudes, we will grow more aware of the rebellious, selfish roots still within us.

바울의 말들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양면이 있는 경고와 훌륭한 위안을 가져다 줍니다. 우선 그 말들은 이제껏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이 매우 뛰어나, 그들의 죄를 더이상 보지 않게 되는 자는 없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거의 그 경지에 이르렀다고 느낀다면, 우리는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성숙하고 영적으로 분별력을 갖게 될수록, 우리는 더욱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더욱 거룩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덜 거룩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우리의 많은 나쁜 습관이나 태도가 많이 나아졌다는 것을 알고 우리 자신을 그렇게 볼때도, 우리 안에 있는 반항적이고 이기적인 뿌리를 점점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Second, we are warned that no one gets so advanced that they don’t struggle with sin. It is quite important to expect a fight with our sinful nature. In fact, just as a wounded bear is more dangerous than a healthy and happy one, so our sinful nature is likely to become more stirred up and active, because the new birth – our coming to faith in Christ – has mortally wounded it. But this passage also greatly comforts us. It is typical, when we struggle with sin, to think that we must be terrible people, or very immature to have such wrestling with temptation and sin. But Romans 7 encourages us that temptation and conflict with sin, even some relapses into sin, are consistent with being a growing Christian.

두번째로 우리는 아무도 죄와 싸워도 되지 않을 만큼 뛰어난 자는 없다고 경고 받습니다. 우리의 사악한 본성과의 싸움을 예상하는 것은 꽤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건강하고 행복한 곰보다 상처받은 곰이 더 위험한 것처럼, 우리의 사악한 본성은 우리의 새로운 출생-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치명적으로 상처받을때 더 자극되고 활발해지기 쉬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울때, 그러한 유혹과 죄와 고분분투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를 상당히 비성숙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통상이지요.

And so the Christian’s heart cries two things at once, just as Paul does. First, there is the desperate cry of discouragement as we look at our own efforts and failings: What a wretched man I am! Who will rescue me from this body of death?” (v. 24). When we read God’s law properly, and when we look at our own lives honestly, there is only one conclusion we can reach: we are truly “wretched”, miserable. Unless we accept that conclusion, we will never grasp the glory of the gospel. We will never truly appreciate the gospel of received righteousness – righteousness as a gift from God. Only if our hearts truly cry at our wretchedness can we then know the hope and liberation of looking away from ourselves and to what God has done. Who will rescue Paul and us? “Thanks be to God –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v. 25a).

그래서 바울이 했던 것처럼, 믿는자들의 마음은 두가지를 동시에 외치게 됩니다. 첫번째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실패를 보며 낙심하는 간절한 외침: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 (24 절). 우리가 하나님의 법의 올바르게 읽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바라볼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도달할 오직 한가지의 결론만이 있다는 것: 우리는 진정으로 “형편없고” 비참해 집니다. 우리가 이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복음의 영광을 거머쥌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진정으로 수여된 의의 복음-하나님의 선물로써 온 의-를 감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가슴이 진정으로 우리의 형편없음을 부르짖을때, 그 다음

우리는 우리 스스로로부터 떨어진 희망과 자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누가 바울과 우리를 구제하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25 절).

By his own efforts, Paul knows that he will fail. He may in his mind be a slave to God’s law but in the sinful nature he is a slave to the law of sin (v. 25b). In a sense, vv. 24–25 look both back to all that has gone before in Paul’s letter, and beyond to what will come. There is no hope in ourselves for our salvation, nor our obedience. All we are and all we have done deserves only judgment. For our salvation, we can only ever look to God’s Son, dying on a cross for us, as Paul showed us in Romans 1–4. For our hope, we can only ever rest in his righteousness, as we saw in Romans 5–6. And for our ongoing obedience, for any real change, we will need to rely not on our own efforts, as Romans 7 has established, but on the work of God’s Spirit, the spirit of the risen Jesus, which will transform our lives and our relationships, as the rest of Romans will show.

바울은 그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그가 실패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의 노예이고 죄의 본성으로는 그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25 절). 이런 의미에서 24–25 절은 바울의 서신 전에 일어났던 모든 것들과 그것을 넘어 앞으로 일어날 일, 둘다를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건 우리의 순종이건, 우리 스스로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과 우리가 한 모든 일들은 오직 심판만을 부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바울이 로마서 5–6 장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희망을 위해서, 우리는 로마서 5–6 장에서 우리가 보듯이, 우리는 그분의 의로움 안에서 안식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멈추지 않는 순종과 참된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는 로마서 7 장에서 확고히 한 것처럼 우리의 노력에 의지하지 않고 성령, 다시 사신 예수님의 영의 사역에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로마서의 나머지 부분이 알려주듯이 우리의 삶과 관계를 바꿀 것입니다.

You and I, we, are “wretched”, miserable, in a terrible predicament. God is not. He is sovereign and loving. Through his Son, Jesus, he has rescued us, and through his Spirit he is changing us, so that we can enjoy him for ever. Thanks be to God –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여러분과 저, 우리는 “형편없는”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군림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분의 영을 통해 우리가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도록, 그는 우리를 바꾸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우리의 주인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Amen

Prepared by Rev. Grant Lawry, Canterbury Presbyterian Church, Canterbury, Melbourne, Australia for use of the Canterbury congregation.